

한 감사 공무원의 꼼꼼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이던 시 감사관실 김성배(세무6급)씨는 시장 내 훽물스럽게 설치된 3개의 송전 철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정문 입구와 시장 환복관에 철타와 선로가 어지럽게 늘어선데다 이로 인해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고 쓰레기가 쌓여 불쾌이 크다. 중개인과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측은 한전에 이설을 요구했지만 한전측은 전기사업법 규정을 들어 비용의 절반을 시장측이 부담하고 이설 부지와 대체 용지 확보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김씨는 지난 1989년 이뤄진 송전 철타 설치가 정상적 과정을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보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진행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관례 등을 검토해 송전철타 3기(면적 252.42㎡)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부과 시효가

수십억원 예산 아끼고 고질민원 말끔히 해결

각화동 시장 한전 송전탑 무단 시설 밝혀내

남아 있는 5년간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433만5천원을 부과했다.

한전측은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년6개월 여만인 지난 13일 이를 기각, 광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 입장에서는 2007~2008년도 1천828만원을 포함 무단 사용 변상금 9천2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욱이 한전

측이 요구해온 대체부지 등을 감안하면 송전철타 1기당 이설비용이 3억~6억원에 달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결과를 시 우치공원 주차장 등 다른 국·공유지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측은 지난 5월 1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7월부터 자발적으로 철타를 철거하고 지중화공사를 벌였다.

김씨는 “짧은 감사기간중 변상금



김성배씨



곽명규씨

부과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랜기간 이뤄져오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각화도매시장 곽명규(환경7급)씨도 1년6개월여간 법정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해 시가 승소하는데 힘을 보탰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수역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들어가는 철타 이설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세입확보, 예산절감, 민원해결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콜센터 유치 설명회

광주시는 수도권지역 콜센터 관리자 100여명을 초청해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콜센터 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콜센터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사에서 콜센터 운영혁신을 위한 지방재배치 전략과 지난 2006년 광주시에 입주한 삼성화재 콜센터가 ‘지방에서의 성공적인 콜센터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광주시는 올해 622개의 콜센터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 달에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상무지구에 콜센터 전용건물을 착공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 시장 “청와대 인사청탁도 거절했다”

연말 정기인사 앞둔 뒤송송한 분위기 질타

박광태 광주시장의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드러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6년 동안 지켜보면서(시 승진) 등을 놓고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청 내에 온갖 소문과 억측, 비방이 유행하자 또 다시 일침을 놓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연말이 다가오니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언론에 불평을 늘어놓고 또 인사를 거론하고 있

다”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년 동안 지켜보면서(시 승진) 등을 놓고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청 내에 온갖 소문과 억측, 비방이 유행하자 또 다시 일침을 놓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신 잔재주 부리는 사람이 승진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예우하고 중책도 맡기겠지만 언론(플래시) 등에 거론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간부회의에서 월동기 소외계층 지원과 경제 살리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과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세계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전국 1위’

3.17%...최근 2년 새 크게 늘어

광주시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와 노동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와 사업소, 5개 구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공무원 정

원의 2.0%는 물론 16개 시·도 평균 고용률 2.34%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5천 683명)를 기준으로 할 때 의무 인원은 114명인데 실제로는 180명을 고용한 것이다. 광주시민을 놓고 보면 2천 20명(소방직 제외) 가운데 80명으로 3.96%에 달한다.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05년까지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내년부터 3.0%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면서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복지후생과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전국 제일 노인복지 도시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발기인 총회...노인건강타운 임원 구성안 등 의결

4팀 30명 안팎 구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조성 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관리·운영을 이룰 공익 재단법인인 설립된다.

시는 19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안)과 임원, 이사회 구성안, 원장 공모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재단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실제로 법인운영을 맡게 될 상근 임원인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 이후 공모를 통해 선임키로 했다.

법인은 1본부 4팀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대규모 시설운영을 위해 노인전문인력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에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고령화 추세 속에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1등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연말까지 1단계가 완공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관리·운영을 이룰 공익 재단법인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19일 광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 관계자는 “재단은 행정 부문에서 취약한 전문성 등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설 운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41만2천㎡(12만5천평)의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1단계),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2단계·광주시도시공사 시행), 노인의료 복합단지(3단계)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노인복지시설로 조성되며 1단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52) 227-9940 총장점 (052) 227-9970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점단 3,000명

① 20복21금 최진희
② 25화 박현빈
③ 27복28금 김수희
④ 4복5금 설운도

후박 나이트 OPEN 광주점단 · 폭스존옴